

(auri)



No. 03
2016.12.31

한옥 건축 사례집 Hanok Examples

돈암서원 한옥마을

신치후 부연구위원 진태승 연구원

돈암서원 한옥마을은 기호유교문화의 본산인 논산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선조들의 지혜와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예학 체험의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 조성한 한옥마을이다.

설계: 성재중 한창건축사사무소 소장(한옥1,2촌)
김석순 아름터건축사사무소 소장(한옥3촌)



돈암서원

한옥마을

돈암서원은 1634년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1548~1631)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기호지방(충청, 경기)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돈암서원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47개 서원 중 하나로 서원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강당인 응도당(凝道堂)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한옥마을 입구 ▲

HANOK



논산 돈암서원(사적 제383호) ▲



돈암서원 배치도 ▲

예학체험의 장, 돈암서원 한옥마을

돈암서원 한옥마을은 돈암서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새로 조성된 문화체험 시설이다. 이곳은 돈암서원과 연계하여 우리 선조들의 유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한옥숙박체험을 제공하는 예학체험의 장(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영채

한옥1촌 전경 ▲



한옥마을 전체 배치도 ▲

전통과 현대의 공존(共存), 돈암서원 한옥마을

돈암서원 한옥마을은 새로 조성하는 마을이지만 전통마을의 형태와 외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하여 유서 깊은 돈암서원과 조화롭게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마을 진입부에 주차장을 두고, 마을 내 도로는 보행자 위주로 계획하여 비상용 차량이 진입하거나 몇몇 사람들이 손을 잡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으로 설계했다. 한옥건축물의 전체적인 규모와 양식은 조선시대 상류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돈암서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한옥1,2촌은 주로 단체 체험객을 위한 공간으로 전통건축의 기법을 충실하게 재현하였고, 한옥3촌은 소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 전통한옥의 외관은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박영채

◀ 한옥1촌 안채의 대청

조선시대 상류주택을 재현한 배치와 소박한 전통한옥의 멋 - 한옥 1, 2촌

한옥1촌과 한옥2촌은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방문객이 한옥을 체험하는 데 필요한 채와 마당으로 구성하였다.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는 공간이자 여성이 주로 머물렀던 안채, 주인의 거실이면서 접객 및 서재 기능을 했던 사랑채, 그리고 각종 부속기능을 갖추었던 문간채를 배치하고 각각의 마당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전통주택의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한옥의 양식과 가구(架構)는 소박하게 구성하였다. 집터에 자연석 기단을 올리고 초석을 놓아 조금은 투박하고 자연스럽게 마감하였다. 기둥, 인방, 창호로 분할된 벽면은 흰 회벽으로 마감하여 여백의 미와 목재 색의 대비가 경쾌하게 읽혀진다.



©박영채

한옥2촌 전경 ▲



한옥2촌 안채의 대청 ▲

가구(架構)의 구성은 별도의 수장이 없는 민도리 양식이고, 처마는 훌처마로 소박하게 하였다. 한식기와 끝에는 와구토를 올려 검은 지붕에 하얀 점이 줄지어 보이도록 가볍게 처리하였다. 벽면에 설치한 창호는 실의 성격에 맞추어 살창, 판문, 들어열개문 등으로 구성하고 내부 벽지와 천장도 전통한옥에서 볼 수 있는 색채와 재료로 마감하였다.

한옥2촌 안채의 방 ▼



한옥1촌과 한옥2촌은 단체 체험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크고 작은 대청과 마당에서 다양한 모임 및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문간채와 별채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이 설치되어 있다.

현대기술을 접목한 고성능, 고품격 한옥 - 한옥3촌


전통방식으로 지어진 한옥은 현대건축물에 비해 단열과 차음이 잘 되지 않지만, 한옥3촌은 전통한옥의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극복하였다.

한옥3촌은 벽속에 단열재를 충진하고 바깥에는 석고보드와 OSB(Oriented Strand Board) 합판을 덧댄 뒤, 흰색 드라이비트류로 마감하여 전통한옥의 회벽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 벽체는 물론 천장과 바닥에도 단열재를 채워 전통한옥의 취약점인 단열과 차음 성능을 크게 보강하였다. 특히 단열이 어려운 당골막이 부분에는 신공법을 개발해 적용하였고 서까래 위로는 단열재, OSB 합판과 방습지를 깔아 천장에서도 찬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단 지붕은 전통한옥과 같이 습식공법으로 기와를 얹었다. 실내는 전기온수 온돌을 사용하여 난방을 하고 시스템 에어컨을 천장에 설치하여 쾌적하면서도 한옥의 내부공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관상 좋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전통문양을 응용한 덮개를 디자인해 설치하였다.



©박영채

한옥3촌 전경 ▲

한옥3촌의 공간은 크게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안채와 안마당, 사랑채와 사랑마당, 그리고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문간채로 나뉜다. 각각의 공간은 한옥1촌과 한옥2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도 독립성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실내공간은 4인 이하의 소가족이 머무는 것을 전제로 방의 크기를 정하고, 각 실마다 독립된 마루와 화장실을 갖추어 편의성을 더했다. 



©박영채

한옥3촌 누마루 ▲

현대적인 공법으로 단열성능을 높인 한옥3촌의 방 ▼



©박영채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김대익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9 www.hanokdb.kr

한옥 건축 사례집



No. 03

한옥 건축 사례집 Hanok Examples

돈암서원 한옥마을

